

경북도, 3000억 투입… 지역-대학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5년간 RISE에 총 1.5조 투자
올해 경북형 글로컬대학과
메가버스티 연합대학 추진

경북도가 올해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에 3000억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의 RISE는 지난해부터 2029년 까지 5년간 총 1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의 대학 지원체계로 지자체가 주도해 대학 지원과 인재 양성, 산업 연계, 지역 정주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북도는 이 사업으로 올해 '경북형 글로컬대학'과 '메가버스티(MEGAveRSITY) 연합대학'을 추진한다.

'경북형 글로컬대학'은 정부의 '글로컬대학30'에는 어렵게 털리했으나 미



경북도청.

래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혁신의지를 가진 대학들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은 AI 인재 양성과 미래 전략산업 중심으로 진행된다.

연간 90억원이 투입되는 '메가버스티 연합대학'은 도내 대학이 함께 지원을 공유하며 상생하는 연합모델로, 각 대학의 특성화 역량을 집중 지원한다.

이 가운데 '경북형 모빌리티혁신대학(MII)'(대구가톨릭대, 대구대, 영남대)은 경북 산업체 수요를 반영해 미래 차 혁신부품, 친환경 배터리 등 학교별 특화 분야의 인재를 양성한다.

'신 한국인 양성 1000 대학'(금오공대, 경운대, 구미대)은 지역 협력을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과 생활, 취·창업 등을 지원해 글로벌 인재로 육

성한다.

경북도는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된 4개교(포항공대, 국립경국대, 대구한의대, 한동대)에 대해선 대학과의 소통과 협력을 늘리고, 추진 상황을 점검해 역량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 대학들을 대상으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COSS),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대학창업교육체 제구축(SCOUT) 등 대학별 특화 분야와 강점을 중심으로 취·창업 지원, 기술이전, 산학연협력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경북 RISE는 단순한 대학지원 예산 확대가 아니라 대학과 지역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실질적 전환점"이라며 "전국 최대 규모의 투자와 과감한 혁신으로 인재가 떠나지 않고 머무는 경북, 대학이 지역을 움직이는 경북형 지역 혁신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경산시

65세 이상 의료비 부담완화

경산시는 지역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일부터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보건기관과 진료비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2025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약 5만7천여 명의 65세 이상 어르신이 의료비 부담 완화 혜택을 받게 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은 의약분업 지역인 보건소와 하양·진량·압량·와촌·자인보건지소에서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경산(경북)=김준한 기자



워라밸 주간 기념식 및 우수 기업 선정 모습.

“워라밸 ‘전국 2위’ 부산으로 오세요”

고용부 ‘일·생활균형지수’ 평가
특·광역시 1위… 일 영역 대폭 개선

부산이 고용노동부의 '2024년 일·생활균형지수' 평가에서 전국 2위, 특·광역시 가운데 1위에 올라 워라밸 도시로서 위상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해 진행한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가점 등 5개 영역 25개 지표를 분석했다. 부산은 73점을 기록하며 전남에 이어 2위, 서울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2023년 65.3점에서 7.7점 상승

하며 전년 대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것이 눈에 띈다. 부산은 2017년 39.5점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약진의 원동력은 '일' 영역에서의 대폭 개선이었다. 부산 기업들의 초과근로 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 휴가 사용 증가 등에 힘입어 이 부문 순위

가 전년 15위에서 1위로 급상승했다.

부산시는 2018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전담 조직과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지난해에는 소규모 기업 대상 집중 홍보, 기업 맞춤 컨설팅, 워라밸 직장 교육, 우수 기업 선정 등을 진행 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울산시, 보통교부세 9654억 확보

전년比 355억 ↑… 확보활동 성과

울산시가 2026년도 보통교부세로 9654억원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행정안전부가 확정한 이번 교부세 규모는 지난해 9299억원보다 355억원(3.8%) 늘어난 것으로, 울산시가 정부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확보 활동을 펼친 결과다.

이로써 울산시의 2026년 국가 예산 확보액은 총 3조7408억원에 달한다. 앞서 확정된 2조 7754억원에 보통교부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전년 대비 2080억원(5.9%) 증가한 규모다.

보통교부세는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가 교부하는 자주 재원이다.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과

달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해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울산시는 교부세 산정 근거가 되는 기초 통계를 정비하고 꾸준히 행정 수요를 발굴했다. 또 행정안전부를 수시로 방문해 울산의 재정 수요와 교부세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울산시는 확보한 보통교부세를 바탕으로 주요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교부세 확보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많은 이의 노력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확보했다"며 "내년에도 보통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AI 수도 울산 실현과 지역 빌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경주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만가구 지원

경주시는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 보다 현실적인 최저생활 보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경주시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만2131가구 1만 5643명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전반에서 확대된 지원을 받게 된다. 기준 중 위소득 인상과 재산·소득 산정 기준 외화를 통해 지원 대상의 폭도 넓어진다.

가장 큰 변화는 기준 중위소득의 역대 최대 폭 인상이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인상되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1인 가구는 월 76만5444원에서 82만556원으로 7.2%, 4인 가구는 195만1287원에서 207만8316원으로 5.1% 각각 인상된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받는 자동차 기준이 기존 배기량 1000cc 이하·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까지 인정된다. 다자녀 가구 적용 기준도 자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청년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도 시행된다.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준 40만 원과 30% 추가 공제에서 60만 원과 30% 추가 공제로 상향 적용해 청년층의 근로 유인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부양비가 전면 폐지된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10%의 부양비를 부과했으나, 2026년부터 이를 폐지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7436가구 9046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전남도, K-문화 글로벌 도약 기반 다져

핵심사업 국비 1000억 확보

전라남도는 2026년 정부예산에 K-노벨문화센터 건립, K-디즈니 인재양성 거점기관 조성 등 글로벌 문화강국 도약 기반이 될 K-문화 핵심 사업 국비 100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국비 확보는 K-컬처 300조 시대에 발맞춰 문화창조산업에 선제 대응하고, 도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향유 인프라를 확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남도 문화의 잠재력과 독창성을 체계적으로 발현할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사업은 ▲K-노벨문화센터 건

립 지원 1억 5000만 원(총사업비 450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29억원(총 185억원) ▲구례 화엄사 구층암 전통문화 체험시설 건립 2억원(총 32억원)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298억원(총 443억원) ▲전남 K-디즈니 인재양성 거점기관 조성 2억 5000만 원(총 300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문학·예술·공연·전통문화·역사·문화콘텐츠 등 K-문화 모든 분야에서 국비를 고르게 확보한 성과를 바탕으로, 남도 문화가 지속해서 융성할 제도적·구조적 여건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청년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도 시행된다.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준 40만 원과 30% 추가 공제에서 60만 원과 30% 추가 공제로 상향 적용해 청년층의 근로 유인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부양비가 전면 폐지된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10%의 부양비를 부과했으나, 2026년부터 이를 폐지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7436가구 9046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하동군

‘하동형 육아수당’ 본격 시행

하동군이 올해 1월 1일부터 '하동형 육아수당'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산율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하동형 육아수당은 출생 순위와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1세 미만 아동에게 출산죽하금 200만원을 1회 지급하고, 7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6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당은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수혜자의 지출 선택권도 보장한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